

생태무용의 사회자본형성 사례로서의 문화창조공동체 연구

김 옥 희*

목 차

| | |
|---------------------|-----------------------|
| Abstract | III.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사례 |
| I. 서론 | 1. 생태무용 기획 내용 |
| II. 문화창조공동체와 사회자본 | 2.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내용 |
| 1. 문화창조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 IV. 결론 |
| 2. 문화창조공동체의 사회자본 가치 | 참고문헌 |

Abstract

A research into cultural-creation-community as a case study of eco-dance that builds social capital

Kim, Ok-hee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co-dance is a process of expressing 'being itself' that revives its own spiritual value, understanding what others think and acknowledging diversity in the structure of perception, expression and action. Eco-dance also builds and executes a community that grows in the symmetrical relationship of individuals and groups. This is possible because dance is able to form a social network where it can recover relational exchange that has been dwindling in the modern society and expands its communal interaction. This study researches into the process where eco-dance forms a social capital in the circle of housewives exclusively in charge of raising kids. Eco-dance designed for local culture creation community creates a social capital in the form of reciprocity, trust and network through a reflective action of awakening group

*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전공 박사과정 수료, 서울무용교육원 원장
논문투고일: 2014. 7. 20. 심사일: 2014. 8. 20. 게재확정일: 2014. 9. 5.

consciousness and seeing itself as a perception process of dance experience and also as self organization process.

key words: eco-dance, culture creation community, social capital

주요어: 생태무용, 문화창조공동체, 사회자본

I .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 팽창, 시간과 돈의 압박으로 인해 공동체 생활의 사회생활로부터 꾸준히 이탈되어가는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탈은 피폐화 된 관계로 인해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살, 우울증, 불안 증세가 늘어나는 불길하고 놀라운 사실을 체감하게 한다. 이러한 불안과 소외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은 점점 위축되고, 공동체 생활의 지혜와 정신의 소멸로 가족 안에서의 기본적 연대감과 공동체적 사랑이 지역사회와 전체사회로 확산,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개별적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행복을 달성되거나 성취하는 완성품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발전하는 생성체로 보는 것에 합의하여야만 한다. 공동체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공동체는 능동적인 태도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 상호되먹임의 과정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과정으로 위축된 사회적 연계망을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문화 창조를 통한 생태적인 삶의 구현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각 개인의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형성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의식과 실천은 바로 사회통합,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사회자본은 호혜적 규범의식과 신뢰를 통해 공동체적 생산성과 응집력을 개선시키고 개별 시민들과 단체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으로 사회자본을 창출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무용은 공동체 예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보다 우선하여 공동체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해야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향하는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한다(한혜리, 2011:36). 따라서 공동체 무용의 실현으로서 생태무용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여 인간의 신뢰적 관계인 사회자본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인간 고유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인과 함께 경험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무한한 여정에 다다를 수 있는 표현과 실천을 지속하고자 한다(김옥희, 2014:68).

본 연구는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창조공동체’를 위한 생태무용이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회자본 형성과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문화창조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실행된 생태무용의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적 성찰의 가치를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자본의 요소를 도출하고 그 형성과정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로는 김재경(2009, 2010)의 ‘문화창조공동체’의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형성방안을 탐색하였으며, 생태무용의 자본 형성 원리의 인식적 토대로 하여 생태무용의 실행 사례의 사회자본 과정을 탐색한다.

II . 문화창조공동체와 사회자본

1. 문화창조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김재경(2009:34)은 ‘문화창조공동체’에 대해 객관적 호혜관계와 주관적 연대의식이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공동체는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주민의 정서 그리고 지역공간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고유의 잠재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되어 있는 지역성을 부각시켜 만들어내는 품격 있는 공동체로서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의 상승을 위해 문화 혹은 문화 예술이라는 매체가 심미적 삶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규정하였다. 공동체적 공간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네트워크와 교류를 통해 서로 기운을 소생시키고, 상호 돌봄과 협동을 통해 창의적인 배움과 활동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의 장들이다. 이 장들은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공간이면서 돌봄과 감정적인 유대가 서로 선순환하면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공간은 부담 없이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시민이 지역의 문화

살롱으로서의 거점이고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문화창조공동체는 지역공간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담은 공동체로서, 지역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되어 있는 지역성을 부각시켜 만들어 내는 품격 있는 공동체,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의 상승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축이다. 주민이 개별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커뮤니티, 지역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커뮤니티로 정의할 수 있다(김재경, 2010:25).

따라서 문화창조공동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 활동의 거점이 되어 시민들의 감성을 기르고 다양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창조 시설로서의 ‘놀이터’가 된다. 지역민들은 문화 예술 체험을 통해 지역에 자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주의식(意識定住)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창조공동체는 지역과 연결되어, 문화예술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동기 부여를 지향하여 그 지역만이 발산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자본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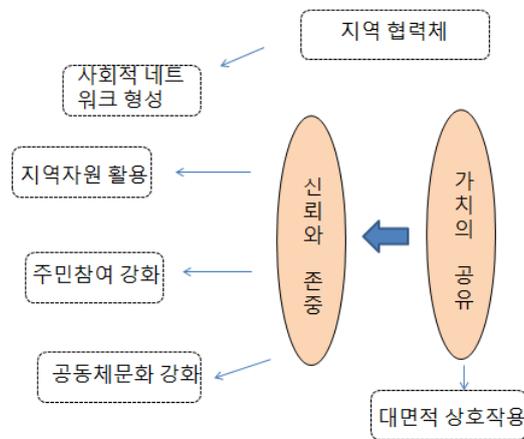


그림 1. 문화창조공동체 커뮤니티 구조

2. 문화창조공동체의 사회자본 가치

사회자본은 자신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이 추구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문화를 창조하는 공동체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풍부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활동하는 즉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구성된 조직이 사회자본의 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구성원들은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폭넓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체 만들기가 한결 수월하다(김재경, 2010:24).

사회자본은 인간의 지식과 상호작용이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이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유된 인지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통해 양자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작용 속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산실이 지역공동체이며 문화창조공동체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창조공동체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공동체를 사회자본의 원천으로 조명하는 관점이 있다(Putnam, R. D., 2000). 사회자본이란 풍부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활동을 한다. 즉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구성된 조직이 사회자본의 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러한 자발적인 조직에 소속된 개인은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폭넓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체 만들기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소 다른 관점이지만 Coleman, S.(2005)은 사회 자본은 단일의 실체가 아닌 정서적인 느낌과 지각적인 인식, 제도화된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소라고 보며, Atteslander, P.(2007:489)는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형평성,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가들이 주목하는 사회자본의 산실이 지역공동체이며 문화창조공동체이다. 이를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NGO, NPO, 주민참여, 사회적 규범, 연결망 등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될 때,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을 뿌리로 갖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결정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열, 2003:41).

현대사회는 독거노인가구, 1인 가구, 이혼 가구 등이 늘고 있으며 계층 간 순환이 불가능한 양극화 사회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의 정서적, 심리적,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통가족으로의 회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지역사회에서 복지적 안전망이나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강화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문화창조공동체 만들기의 핵심가치는 풀뿌리 자치를 골간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역은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삶의 감수성과 경향성을 포함하는 주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범주로 공동체 주민들은 품격 있는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조건 지우는데 결정적인 생활환경을 개선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Ⅲ.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사례

생태무용(오레지나, 2011:39)은 의식을 통한 체험과 실천의 단계로 ‘관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동체무용이다.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들에게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일깨움을 통해 이웃과 함께 건강한 육아활동을 꿈꾸는 문화창조공동체를 통해 생태무용의 사회자본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생태무용의 기획 내용

1) 기획의도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운영되는 천호동의 작은 도서관은 문화창조공동체로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온 주부들,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도서관에 모여 단순한 정보교류를 넘어서 서로의 심신을 위로하며 생활 속에 밀착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그동안 도서관은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부들의 자기 정체성과 마을의 리더로서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한다.

2) 기획 목표

본 기획의 목표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부모 교육의 장으로 주부들에게 생활 속에 밀착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동을 촉진하여 마을의 리더로서 주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창조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주부들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여 각 개인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 주부 생활로 인해 단절된 경력으로 무더진 감각과 의식을 일깨워 자신의 내면세계 즉 가치관, 감정, 사상 등의 정신적 사유로서의 무용을 경험한다.
- 경직된 주부들의 심신을 양생적 체험을 통해 주부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신체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행복한 엄마로서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 그리고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으로 건강한 가족의 중심을 세운다.

3) 기획 과정

대상 선정

강동구 천호동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기존의 도서대출 및 반납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서 쉼터, 어린이 책 놀이터, 청소년들의 문화쉼터, 어머니들의 배움터, 주민사랑방, 독서문화 강좌 공간 등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특히 영유아 엄마들에게 도서관은 단순히 지역주민으로서 책을 빌려가거나 열람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같은 연령대의 자녀들을 둔 주부들 간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야깃거리까지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기획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복합 공간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일어린이도서관 이용 주부들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달고 사는 주부들에게는 학부모로서 그동안 눌러있던 자신의 감성을 회복하고 자녀들과의 세대 공감을 위한 다양한 예술적 향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들이 가정에서의 엄마 역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창조자로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되어 잠재된 능력을 안정적인 사회망을 통해 사회참여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의 교육문화를 리드해가며 창의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획의 방향

- (1) ‘살림’이라는 생태의식을 형성하는 무용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알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들과의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몸놀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TV로 대체되는 시간들을 건전한 양육문화로 만들어 가며 지역에서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아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창의적인 문화 나눔으로 행복을 공유(sharing)하는데 요구되는 신뢰와 연결망이 형성되도록 한다.
- (2) 도서관 주부들이 경험한 몸 살림과 마음살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지역문화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주부들을 ‘마을의 리더’로서 자기 조직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5) 기획 구조 및 구성

- (1) 무용 공유 기간: 2014년 3월~2014년 8월
- (2) 지역 및 대상
 - 지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 연령 및 성별 특성: 20세 후반~40세 주부, 영유아
 - 장소: 천일 어린이도서관
- (3) 실행 규모
 - 구성원: 10명~20명(평균 참여자 영유아 5~6명, 주부 7~8명)
 - 프로그램: 장기 총 20차시 이상/ 주 1회 2시간

(4) 프로그램의 구조

| | | |
|------------|---------------------|---------------------|
| 생명성 | 다양성 | 관계성 |
| 생태의식 | 양생체험·참여 | 실천 |
| 살림 | 다음 | 어울림 |
| 생태무용 구조 | | |
| 열음터 | 상상 & 놀이터 | 소통 & 나눔터 |
| 내 몸 알기 | 양생적 몸 체험 | 몸놀이 책 만들기 |
| 감각/감정 일깨우기 | 단동십훈 몸놀이 | 자조모임 |
| 정체성/ 자존감 | 표현/ 관계형성 | 지역의 문화창조 |

그림 2. 생태무용 프로그램 구조

(5) 생태무용 실행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표 1. ‘엄마표 몸 놀이 학교’ 내용

| 원리 | 구조 | 단계 | 활동주제 | |
|----|-----|-----------|------|------------------------|
| 의식 | 열음터 | 나는 누구일까요? | 1 |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 | | | 2 | . 우리 이름은 ‘누구’? |
| | | | 3 | . 내 몸 사용 설명서 |
| | | | 4 | . 내 마음의 서랍 열기 |
| | | | 5 | . 슬로우, 슬로우... 나의 몸 느끼기 |
| | | | 6 | . 나의 감정 이모티콘 표현하기 |
| 체험 | 놀이터 | 웃는 몸 체험 | 7 | . 웃는 몸으로 말하기와 춤추기 |
| | | | 8 | . 전통 단동십훈 놀이 |
| | | | 9 | . 엄마표 몸놀이 십훈 |
| | | | 10 | . 재활용으로 춤추는 놀이터 |
| | | | 11 | . 마당을 나간 예코 놀이터 |
| | | | 12 | . 엄마가 읽어주는 움직이는 그림책 |
| | | | 13 | . 엄마와 함께 춤추는 그림책 |

| 원리 | 구조 | 단계 | 활동주제 | |
|----|-----|-------------|-------|----------------------|
| 실천 | 나눔터 | 우리 동네 몸 놀이터 | 14 | .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통놀이 축제 |
| | | | 15-16 | . 엄마표 몸놀이 학교 리더 워크숍 |
| | | | 17-18 | . 웃는 몸, 웃는 책 만들기 |
| | | | 19-20 | . 우리 동네 몸 놀이터 |

2.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내용

앞 장에서 제시한 생태무용 20차시 프로그램 실행 후 참여자들 반응을 분석한 결과 호혜적인 집합의식성, 무용체험을 통한 신뢰성, 자기조직화를 통한 사회자본의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혜적인 집합 의식성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은 육아의 문제를 생태무용의 실행을 통해 지역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부들은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로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나 이제 양육의 문제는 주부만의 개인적인 문제를 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내 자식만의 교육을 위해 주거지를 옮겨 다니고, 유한한 경제적 자본을 투자하여 자녀들에게 무한 투자하면서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없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들은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더욱 민감하고 정주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부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자녀들에게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였다.

생태무용은 무엇보다 엄마이기 전에 개별적 존재로서 ‘나’ 자신에 대한 발견과 몰입으로 의식을 하였다. 주부들의 몸과 정신의 생태성을 회복하여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명상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족, 이웃 등 모든 사람들의 생명서의 존중으로부터 이타적인 호혜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 아이를 위한 배움과 실천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깨우치며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 주민들 간에 배려와 존중의 호혜적 규범을 실천하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볼 수 있었다.

생태무용의 명상과 몰입은 생명성을 존중하고 관계의 차별과 소외를 지양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몸을 통해 자연의 전일성을 경험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역량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완성적 동기에 이른다. 이러한 생명의 도에 이르는 깨달음이 개인을 넘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식의 전환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욕망의 굴레로부터 진정한 자신에 이르는 집합의식으로서 호혜적 규범성 갖게 되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생태무용은 공동체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집단적 정신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부들끼리의 친밀감은 상호신뢰를 이끌어 내면서 그들의 가치 지향적 생활방식의 유지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부들의 가치지향적인 생활방식의 선택은 다른 주부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더욱 확고히 유지시켜주었다(김종미, 2004:185). 참여자들은 지역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체적인 집합의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주부들은 생태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내부에 담아두는 가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즉, 어떤 특정한 출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이 소유하는 가치는 규범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부들은 집단적 생활을 통해 그러한 특정한 출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인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비롯된다.

주부들은 무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주부들의 자조모임을 갖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명상의 기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깨우치며 지역에서 함께 함께 해결해 가는 집합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육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민은 문화창조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집단의식으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호혜적인 공공선의 실천이다.

2) 무용체험을 통한 신뢰성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자녀에게는 엄마의 자존감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듯, 엄마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져 아이 역시 행복해질 수 있다.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감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가족들의 건강과 먹거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일에 너무 소홀해지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몸과 마음을 온통 가족에게 쓰다 보니 자신의 건강과 정서를 살피는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로서 고단한 주부들에게 오히려 그동안 놓려있던 자신의 감성을 회복하고 자녀와의 공감을 위해 무엇보다 주부들의 심신의 조화가 필요했다.

주부들은 전업주부로서 갖는 경제적 의존자로서 비성취감 사회로부터 소외감에서 비

롯되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 공동체 성원의 멤버십을 획득함에 따라 사회적 소속감을 얻고 그 자신감으로 삶의 통제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태무용의 양생적 체험은 내적인 생태와 외제적 생태가 혼란을 겪으며 조화와 화합의 질서를 회복하는 체험으로서 곧 자신에게 질적인 삶을 축적하게 되는 자본으로 보았다(김옥희, 2014:68).

주부들은 둔화되고 분절된 자의식에 대한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기 체험의 과정이 필요했다. 결혼 이후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경력 단절의 불안과 그로인한 사회와의 괴리감은 육아활동에도 적잖이 심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에 대한 부담은 물리적인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곧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져 개인들 간의 경쟁심리가 우리 사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부들에게 생태무용 체험은 감각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의경이 형성되고 이러한 의경은 타인과의 감성적인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한혜리, 2014:66).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 타인의 이야기, 지역의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마주보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생태무용의 체험 과정은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뢰관계를 볼 수 있었다. 주부들에게 생태무용은 그동안 자신의 파편화된 삶으로부터 전체적이고 통합된 존재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현실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려고 결의를 증대시키는 창의적인 문화 활동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정주하며 문화창조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자기조직화를 통한 사회자본의 지속성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전체라는 시스템적 견해는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를 지속시키는 윤리가 바로 공동체 의식이며 이러한 공동체의식, 즉 생명에 대한 존중과 나눔이 바로 공동체 삶인 것이다.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하나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오레지나, 2012:41).

주부들에게 작은 도서관이라는 문화창조공간은 함께 모여 생활 속에 밀착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촉진하게 하였다. 자신이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되고 나아가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 사회에

대해 상호되먹임의 과정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무용의 참여와 실천으로 사회적 연계망을 형성한다. 온라인 모임, 유아를 동반한 주부들,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온 주부들,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등 다양한 대상자들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모여 단순한 정보교류를 넘어서 서로의 심신을 위로하며 생활 속에 밀착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엄마표 몸놀이학교’는 주부들의 자기조직화를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주부들의 생태무용은 품격 있는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건 짓는데 결정적인 생활환경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의 공동선을 지향하며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위해 집단적 저항과 실천의 경험에서 행동주의적 규범 차원에서 사회자본이 창출되고, 나아가 향후 ‘마을 강사’를 배양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지역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자본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IV. 결론

생태무용은 의식-표현-실천이라는 구조를 통해 자기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를 살리는 자기다움의 표현과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다양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대칭적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실천한다(오레지나, 2010). 이는 무용이 현대사회에서 감소되어가고 있는 관계의 교류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생태무용을 실행하여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였다.

첫째, 주부들에게 생태무용의 의식은 자신에 대한 명상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녀, 가족, 이웃 등 모든 사람들의 생명성의 존중으로부터 이타적인 호혜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 아이만을 위한 배움과 실천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깨우치며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 주민들 간에 배려와 존중의 호혜적 규범을 실천하는 사회자본의 가치를 볼 수 있었다.

둘째, 주부들의 무용 체험은 감각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의경이 형성되고 이러한 의경은 타인과의 감성적인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 타인의 이야기, 지역의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마주보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생태무용의 체험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의 신뢰적 관계형성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주부들에게 생태무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되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문화창조 공간에서 주부들이 함께 모여 생활 속에 밀착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촉진하며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 마을의 리더로 실천해가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창조공동체를 위한 생태무용은 집단의식을 일깨우고 무용 체험의 인식과정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반성적 행위와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을 형성하였다.

참고문헌

- 김옥희(2014), “생태무용의 자본형성 원리 탐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2호**, 68-80.
- 김종미(2004), “중산층 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 창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재경(2009), “문화창조공동체 만들기”, **대구경북연구원 3집**, 34-45.
- _____ (2010), “문화창조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대구경북연구원 4집**, 23-37.
- 이재열(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회지 제5집 1호**, 41-81.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3집**, 51-60.
- _____ (2012), “에코댄스의 구성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37-49
- 한혜리(2011),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 공동체무용과 교육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1호**, 36-46.
- _____ (2014), “무용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2호**, 59-72.
- Atteslander, P.(2007), “Social Transformation on the Age of Globalization: A Challenge to Reduce Anomie and to increase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7(3): 489-494.
- Caleman, S.(2005), “Changing the way we work: Towards more flexible form of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cus, October, 2005.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정승현(역, 2009), **나 홀로 볼링**, 서울:페이퍼로드.